



앞줄 왼쪽에서 첫째 전 회장 윤명호 목사, 둘째 전 회장 이병준 목사, 셋째 김진수 장로, 넷째 회장 장동신 목사, 다섯째 전 회장 양춘길 목사, 여섯째 손한익 뉴저지한인회장.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신년감사예배 · 하례식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가 주최한 2020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28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제1부 만찬은 회장 장동신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인사, 장소를 제공한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박형은 목사의 환영사와 만찬 기도, 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말씀’ 담당자를 두고, “목사가 해야지, 왜 장로가 한다고 순서지에 인쇄되어 있느냐”며 큰소리들이 오갔다.

제2부 감사예배는 부회장 최준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의 인도와 박영미 집사(뉴저지연합교회)의 반주로 진행됐다.

예배로 부름, 찬송 552장, 목회분과위원장 이의철 목사(뉴저지은혜제일교회)의 기도, 회장 장동신 목사(오늘의목양교회)의 짧은 설교, 홍보분과위원장 하늘 목사(언덕위의교회)의 성경 봉독, 뉴저지목사합창단(지휘 김중윤 목사)의 특송, 이사 김진수 장로(세빛교회)의 ‘선교 메시지’ “무엇이 악한가?”, 합심 기도, 찬송가 215장을 부르며 한 봉헌, 기록회계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의 봉헌

기도, 총무 육민호 목사(주소원교회)의 광고, 전 회장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예정에 없던 설교를 통해 “뉴저지교협 33회기의 표어가 ‘복음을 삼시다’이다.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는데, 교회를 떠난다. 그 이유가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 교회가 싫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말씀과 삶이 같지 않아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복음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33회기의 표어를 그렇게 정했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김진수 장로는 마태복음 25장 26절과 신명기 15장 9절을 본문으로 “무엇이 악한가?”라는 제목의 ‘선교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위해 신철웅 목사(친교분과위원장, 뉴저지 복된교회)가, 미국과 한국과 한민족을 위해 백형두 목사(협동총무, 갈보리순복음교회)가, 뉴저지 동포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정일권 장로(이사, 시온제일교회)가 합심,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제3부 하례식은 서기 김대호 목사(산돌교회)의 사회로 진행됐

다. 월드밀알 핸드벨 콰이어(리더 최원희)의 개회 연주, 이하얀 사모(하나님의사랑교회)의 선창에 따른 애국가와 미국가 제창, 회장 장동신 목사의 신년사, 장원삼 뉴욕총영사 등의 영상 축사, 손한익 뉴저지한인회장의 축사, 회장 장동신 목사의 Diana Kim 자문 변호사 위촉, 회장 장동신 목사의 사업보고, 뉴저지권사합창단(지휘 김에스터 집사, 반주 이해경 집사)의 축가, 뉴저지장로성가단(지휘 윤길웅 권사, 반주 황소라 집사)의 축가, 폐회 찬양 “예수 예수”, 전 회장 윤명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의 폐회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다. 두려움이 없다. 높은 자존감으로 당당하다.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선포한다. 2020년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교회에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요지의 신년사를 했다.

(기사 · 사진 제공·복음뉴스)